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17호 구독신청 (02)2004-8212 창간 24 1994~2018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9월 9일)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한 글자 한 글자 꽃이 되기를…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24주년을 맞았다. 오탁악세에 부처님이 오셨듯이 불법을 전하는 일은 사바의 모든 갈등과 고단함이 사라질 때까지 멈출 수 없는 불사다. 또 한 번 창간일을 맞이하여 그날의 초심을 되새긴다. 도량을 가득 채운 가을꽃처럼 신문에 새긴 한 글자 한 글자가 힘겨운 사바에 꽃이 되기를 서원한다. 사진은 10월 9일까지 열린 세종시 영평사 구절초축제 모습. **세종시 영평사=박재완 기자**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 79명 당선

11일 직선직 선거 · 8일 직능대표 선출 결과

최다선의원은 초격 스님
비구니 의원 2석은 공석

16대 대비 재선의원 약진
몇몇 본사서 치열한 경쟁
임기는 11월 9일부터 4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개원 종회서 의장단 선출향후 4년간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를 이끌어 입법활동을 펼칠 종회의원 79명이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가 10월 11일 발표한 제17대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선거결과에 따르면 경선이 치러진 곳은 용주사(2교구) · 법주사(5교구) · 마곡사(6교구) · 동화사(9교구) · 은해사(10교구) · 통도사(15교구) · 고운사(16교구) · 백양사(18교구) · 대흥사(22교구) · 선운사(24교구) 등 10곳이다.

선거 초반 6명이 입후보하며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던 범어사(14교구)는 막판 네 후보가 사퇴하면서 무투표 당선 처리됐다.

이로써 직선직 51석을 비롯해 앞서 10월 8일 열린 직능대표 선출위원회서 28석이 확정되면서 제17대 중앙종회는 재적의원 79명으로 문을 열 전망이다. 직능대표로는 △율원-각림 · 도현 △선원-심우 · 종호 △강원-도심 · 대진 △교육-혜일 · 진각 △포교-범해 · 원묵 △사회-일감 · 보인 △복지-보림 · 탄웅 △문화-태원 · 도림 △법제-초격 · 만당 △행정-자공 · 연관 스님 등 20명이 각 분야별 직능대표로, 상덕 · 대현 · 정운(동학사) · 철우 · 정관 · 진명 · 정운(세원사) · 혜도 스님 등 8명이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공석 2석은 비구니의원석이다. 10명의 종회의원 후보 추천권을 가진 전국비구니회는 앞서 내부 선거를 통해 8명의 후보만을 추천한 바 있다.

전국비구니회는 추후 보궐선거를 통해 공석을 채울 예정이다.

제17대 종회의원 당선자 중 최다선의원은 5선의 초격 스님이다. 초격 스님은 13대부터 연이어 중앙종회의원을 지냈으며, 제16대 중앙종회 수석부의장을 맡았다. 이를 뒤이어 4선 의원은 총 7명으로 주경 · 정범 · 장명 · 이암 · 무관 · 함결 · 범해 스님이다. 또한 3선 의원은 효림 · 종민 · 성행 · 제정 · 등운 · 각림 · 심우 · 혜일 · 만당 스님 등 9명이다.

17대 종회의원 당선자 비율에서는 재선의원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번 재선의원은 30명으로 16대 21명에 비해 대폭 늘었다. 초선의원은 3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16대 37명보다는 적은 수치다.

선거가 가장 치열했던 곳은 2교구본사 용주사다. 성광 · 현담 · 환적 · 덕운 스님이 출마해 성광 스님(54표)과 현담 스님(48표)이 당선됐다. 덕운 스님도 48표를 얻었으나 현담 스님보다 세납이 낮아 낙선했다.

18교구본사 백양사에서도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다. 세 명의 후보가 나서 원명 스님(58표)과 석장 스님(54표)이 당선됐다. 재선에 도전한 광전 스님은 53표를 얻어 1표차로 떨어졌다.

24교구본사 선운사에서는 재선에 성공한 재안 스님(46표)과 태효 스님(38표)이 당선됐으며, 법경 스님은 3표 모자란 35표를 얻는 데 그쳤다.

17대 종회의원 임기는 오는 11월 9일부터 4년간이다. 이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중앙종회 정기회가 개원하며, 첫날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을 선출해 입법활동에 나선다. 임시의장으로는 관례에 따라 최다선의원인 초격 스님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17대 중앙종회의원 명단 A6〉

대행 사상 연구 한자리서 만난다

대행선연구원, 한마음과학원 학술대회 잇달아

26, 27일 한마음선원 본원서
'대행선 수행과 깨달음' 부터
각 분야 응용까지 주제 '다채'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선사상과 이를 각 분야에서 응용한 연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학술대회가 잇달아 개최된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는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 강당에서 제2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대행선에서의 수행과 깨달음'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행선에서 나타난 수행론과 깨달음을 연구한 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요 논문으로는 △김호귀 동국대 교수의 '대행선의 수증관에 대한 고찰-묵조선과 관련해' △김준호 울산대 교수의 '초기불교 자아관과 선관 해석에 의거한 수행과 깨달음' △법상 스님(중앙승가대)의 '묘공 대행의 수행체계와 자비교화에 대해' △고승학 금강대 교수의 '화엄에서의 수행과 깨달음-지엄의 화엄사상을 중심으로' △박소령 동국대 교수의 '대행의 주인공 관법에 대한 고찰' △청강 스님(동국대)의 '대행의 증명관 일고'가 각각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을 비롯해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 안유숙 동국대 교수, 김천학 동국대 교수, 정영식 고려대장경연구소 교수, 박재현 동명대 교수가 참여한다.

대행선연구원은 "올해는 대행 선사가 탄생한지 91주년이며, 열반 6주년이 되는 해"라며 "선사께서는 신명을 아끼지 않고 수행 정진했고, 증득한 바를 평생 중생교화로 회향하셨다. 이번 학술대회는 선사의 가르침을 참답게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재)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는 10월 27일 오전 9시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 강당에서 개최하는 제3회 한마음과학 학술대회를 연다. 한마음과학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대행 선사의 사상을 교육 · 과학 · 인문 등 각 분야에 응용한 연구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재영 서강대 교수가 '한마음 사상과 종교운동 심리학의 양립성: 대행 선사와 윌리엄 제임스에 대해'를,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의 혜유 스님이 '한마음선원 해외 포교 현황'을, 랄프 패슬러 독일 마부르크대 교수가 '독일 중세 문학 텍스트를 통한 대행 선사 번역 의미'를 발표한다.

또한 안영우 가정의학 전문의가 '공생 생명체로서의 생명의 기원과 진화'를, 김영래 고려대 교수가 '지혜교육으로서의 한마음교육 연구'를, 이상호 박사(대행선연구원)가 '의정의 이원화와 통합을 활용한 생수선 정립 방안연구-대중적인 간화선 수행법을 중심으로'의 연구 발표가 이뤄진다.

발표 이후에는 한마음과학원 내 공학팀 · 교육학팀 · 오공팀 · 의학팀 · 식물팀의 스터디 발표도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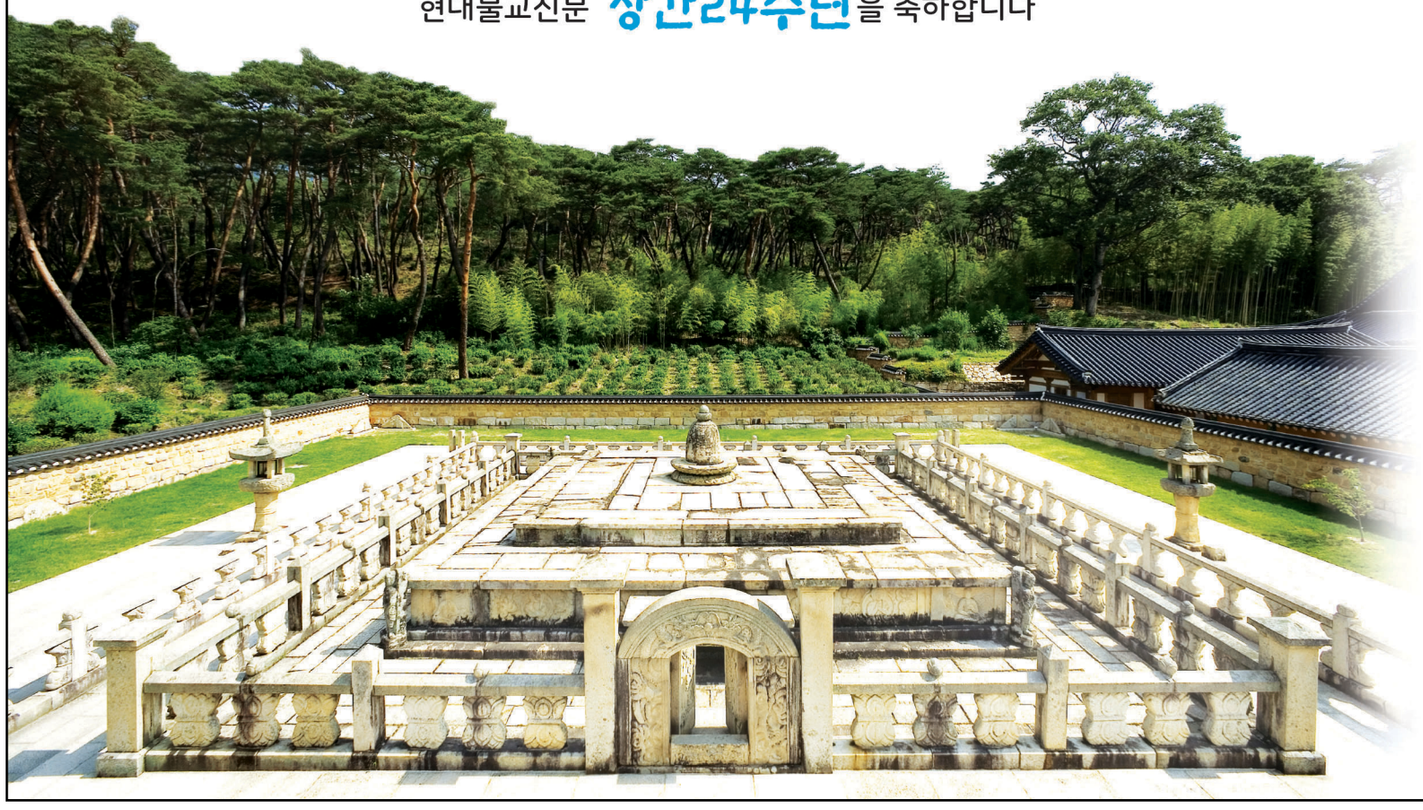
창간 24주년 특집호 40면 발행
특집 · 데스크 초대석 –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A7
특집 · 나눔&템플스테이 A9 · 10 · 11 · 12



특집 · 명사 창간 축하메시지 A18
특집 · 고령사회와 불교 B4 · 5 · 6 · 7 · 8



현대불교신문 창간24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방 장 중봉 성파 대종사
주 지 향전 영배

유 나 보장 영일 총무국장 혜 철 사업국장 석 운
율 주 중산 혜남 연수국장 만 초 사회국장 송 정
강 주 영은 현진 기획국장 선 본 포교국장 선 림
박물관장 인산 지준 교무국장 인 경 호법국장 자 인
재무국장 무 문 원 주 선 원

영축총림 통도사 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